

中國語 朗讀 教育 試論

鄭潤哲*

目次

- I. 머리말
- II. 낭독의 외국어 교육학적 개념
- III. 중국어 교육에서 낭독 교육의 중요성
- IV. 중국어 낭독 교육의 현황과 과제
- V. 맺음말

I. 머리말

중국 속담에 “书读百遍，其意自见。”，“熟读唐诗三百篇首，不会作诗也会吟。”이라는 말이 있다. 이 두 속담의 공통점은 모두 ‘读’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의 ‘读’는 ‘소리 내어 읽는 것’을 말한다. ‘소리 내어 읽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낭독’¹⁾이 된다. 이렇게 보면 책의 의미를 이해하고 시를 외우는데 있어서 낭독의 중요성은 새삼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을 듯하다. 하지만 본고에서 새삼스레 낭독이라는 단어를 교육과 결합시켜 꺼

* 釜山外国语大 中国语学部 助教授

1) ‘낭독’과 비슷한 단어로 ‘낭송’이 있다. 국어사전의 정의를 보면 낭독은 ‘글을 소리 내어 읽음’이고 ‘낭송’은 ‘소리 내어 글을 읽거나 읽’으로 차이가 있다. 중국어의 경우에도 ‘朗读’은 ‘분명하고 큰 소리로 글을 읽다(清晰响亮地把文章念出来。)', ‘朗诵’은 ‘큰 소리로 시문이나 산문을 소리 내어 읽어서 작품의 느낌을 표현해 내다(大声诵读诗文或散文, 把作品的感情表达出来。)’로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위 속담의 ‘读’는 ‘낭독’이나 ‘낭송’ 모두로 번역될 수 있겠다. 다만 본고는 외국어 교육의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으므로 ‘낭독’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내는 이유는 낭독이 중국어 교육에 있어서 그 역할만큼 중요시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에 그 가치를 중국어 교육의 효과라는 각도에서 재조명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이유에서이다. “어음의 정확함은 어휘의 습득 정도와 정비례한다(王正文, 1996:30).²⁾”, “어구를 큰 소리로 읽은 실험자는 그렇지 않은 실험자에 비해 기억력이 34%나 높았다(朱治中, 1991:25)³⁾”라는 결과는 중국어 교육에 있어서 낭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 보면 종종 학습자의 중국어 낭독이 ‘독음은 정확한데 어색하고 딱딱한’ 경우를 보게 된다. 물론 시간이 오래 흘러 학습자의 학습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현상은 개선이 된다. 하지만 교육은 효율성의 문제이다. 학습자의 중국어 낭독이 어색한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하나는 자연스럽게 낭독하는 방법을 학습했으나 아직 습득이 안 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스럽게 낭독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경우일 것이다. 전자라면 연습을 통해 습득률을 높이는 문제와 연관이 되지만 후자라면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낭독을 하나의 교육 대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낭독의 개념과 특징 및 낭독이 중국어 교육에서 어떠한 기능을 지니는지에 대해 고찰할 것이며, 현재 낭독 교육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낭독의 외국어 교육학적 개념

몇 년 전부터 ‘낭독의 발견’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시, 소설, 수필 같은 문학적인 글 뿐 아니라 노랫말, 편지글, 사진집, 명언 등 다양한 글들을 낭독이라는 형식과 결합하여 표현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2) “读音正确与否同词汇掌握程度往往成正比。”

3) “实验表明: 凡是对词语进行过高声朗读的受试者比未高声朗读的受试者的记忆力高34%”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작품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소리를 내어 스스로 몸을 통하여 느끼도록 한다는데 취지가 있다. 이처럼 낭독은 ‘보고 듣는’ 감각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감동이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변에서는 ‘시 낭독회’, ‘낭독음악극’, ‘성경 낭독회’ 등처럼 다양한 낭독 관련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낭독은 그 가치가 여러 영역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그러면 낭독은 어떻게 정의되어질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낭독’을 외국어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장에서는 외국어 교육의 각도에서 ‘낭독’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낭독’은 ‘소리 내어 읽기’이다.

낭독은 사전적으로는 ‘글을 소리 내어 읽음’으로 정의된다. ‘소리 내어’라는 점에서 ‘소리 내지 않고’ 읽는 ‘묵독’과 대별된다. 하지만 낭독과 묵독이 구별되지 않고 ‘읽다’라는 단어로 중화(中和)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2007년 고등학교 개정 교육 과정 중 ‘중국어 I’의 ‘목표-언어기능(읽기)’ 부분에 제시된 몇 가지 목표 기술이다.

- (가) 한어병음이나 한자로 표기된 단어나 간단한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다.
- (나) 간단한 글을 읽고 상황 및 주제를 파악한다.
- (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간단한 글을 읽고 이해한다.
- (라) 개인의 감정이나 의견을 나타낸 간단한 글을 읽고 이해한다.

위의 목표 기술 중 (가)의 ‘정확하게 읽는다’는 ‘소리 내어 읽음’ 즉 낭독을 나타내는 반면 (나), (다), (라)의 ‘글을 읽고’에서는 ‘파악한다’, ‘이해한다’는 말과 결합되어 있기에 묵독의 개념에 가깝다. 다음은 ‘중국어 I’의 ‘내용-언어

적 내용-언어기능(읽기)’에 제시된 목표 기술이다.

- ① 한어병음으로 표기된 단어나 간단한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다.
- ② 한자로 표기된 단어나 간단한 문장을 바르게 읽는다.
- ③ 간단한 문장을 발음, 강세, 억양에 유의하여 읽는다.
- ④ 간단한 지시문, 안내문, 표 등을 읽고 정보를 파악한다.
- ⑤ 간단한 메모, 엽서, 편지, 전자 우편 등을 읽고 이해한다.
- ⑥ 개인의 감정이나 의견을 나타낸 간단한 글을 읽고 소재, 주제, 대의를 파악한다.

위의 목표 기술에서도 ①, ②, ③은 낭독에 가까우며, ④, ⑤, ⑥은 묵독에 가깝다. 이처럼 ‘읽기’에는 낭독과 묵독의 개념이 혼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성적 발화를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자는 뚜렷이 구별된다.

2. 낭독은 어음, 의미, 통사의 종합적 운용 과정이다.

‘소리를 내다’라는 점에서 낭독은 ‘발음’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국내에서도 ‘발음 교육’이라는 명칭이 종종 사용되기 때문에 낭독 교육과의 구별을 위해서도 ‘낭독’과 ‘발음’의 개념적 정립이 필요하다. ‘발음’은 ‘소리를 냄’ 또는 ‘그 소리’으로 정의된다. ‘발음 방법’, ‘발음 부위’ 등의 명칭에서는 ‘소리를 냄’의 의미로 쓰이며, ‘발음이 부정확하다’ 등의 표현에서는 ‘그 소리’의 의미로 쓰인다. 이 중 ‘소리를 냄’이 소리를 내는 동적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낭독과 유사해 보인다. 발음은 정확한 소리를 내기 위한 조음적 과정이다. 즉 해당 소리를 정확하게 내기 위해 조음 부위, 조음 방법 등의 이해하고 실천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발음은 주로 소리를 ‘정확하게 내는’ 측면에 주안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 발음 교육과 관련된 논문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성모, 운모, 성조 등 소리의 구성 성분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반면 낭

독은 ‘소리는 내다’라는 측면에서는 ‘묵독’과 대별되지만 ‘읽다’라는 측면에서는 ‘발음’과 차이를 지닌다. 정확하게 소리를 내는 것이 조음적 과정이라면 정확하게 읽는 것은 조음적 과정을 바탕으로 한 이해와 표현의 과정이다. 설령 개별적 소리들을 정확하게 낸다 해도 소리들 사이의 의미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확하게 읽을 수 없으며, 단어 사이의 통사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확하게 읽을 수 없다. 또 정확하게 읽지 못하면 의미 전달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낭독’에 대해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

- 표준어 낭독은 하나의 학문으로 낭독을 할 때에는 성모, 운모, 성조, 경성, 儿化, 음운변화 및 어구의 표현 방식 등이 모두 표준어의 어음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⁴⁾
- 낭독은 유성(有声)의 학습 방법으로, 눈, 입, 귀, 두뇌 등의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동작 과정이다.⁵⁾
- 낭독은 서면 언어를 유성 언어로 전환하는 재창작 활동이다. 즉 눈, 입, 귀, 두뇌를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독해 활동이다. 서면 문자를 토대로 하여 음성 지식과 기능을 총체적으로 운용하는 활동으로 단어에서 텍스트에 이르는 다양한 언어 단위와 문자에서 어음, 의미 그리고 표층의미에서 심층적 의미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감지 활동이다.⁶⁾

위의 정의들을 보면 ‘낭독’은 ‘규범적 어음 규칙에 맞게 감각 기관을 사용

4) 普通话朗读是一门学问,它要求朗读时在声母、韵母、声调、轻声、儿化、音变以及语句的表达方式等方面都符合普通话语音的规范。刘香敏(2007:72)

5) 朗读是一种有声的学习方法,是眼、口、耳、脑等多种器官共同参与并且协调动作的过程。韩惠俐(2006:59)

6) 朗读是把书面语言转化为发音规范的有声语言的再创作活动。就是一种眼、口、耳、脑并用的综合性阅读活动,是汉语课文学习中从字词段到篇,从文字到语音、语义,从表层意思到潜在情味的全面感知。李桂花(2007:36)

하여 소리를 낸다'는 점에서는 '발음'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서면 문자를 토대로 하여 음성 지식과 기능을 총체적으로 운용하는 활동'이라는 점과 '어음과 의미를 결합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일정한 차이를 지닌다. 그러므로 낭독은 발음과는 달리 어음, 의미, 통사의 종합적 운용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Ⅲ. 중국어 교육에서 낭독 교육의 중요성

중국어를 배우는 환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여 자연스레 습득하는 경우로 이는 'CSC(Chinese Speaking Country)'환경이라 할 수 있는데, 중국·대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중국어를 공용어 수준의 제2언어로 배우거나 외국어로 배운다 해도 'CSC'환경에서 배우는 경우로 이는 'CSL(Chinese as a Second Language)'환경이라 한다.⁷⁾ 중국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는 싱가포르 등이 전자에 해당되며, 외국인이 중국이나 대만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경우는 후자에 해당된다. 셋째는 실생활에서는 거의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외국어로만 배우는 경우로, 이를 'CFL(Chinese as a Foreign Language)'환경이라 하며,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는 대체로 'CFL'환경이나 'CSL'환경 속에서 중국어를 배우게 된다. 즉 국내에서 외국어로 중국어를 배우거나 중국이나 대만으로 장,단기 연수나 유학을 가서 중국어를 배운다. 중국어 학습에 있어서 'CFL'환경과 'CSL'환경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차이를 지닌다.⁸⁾

7)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對外漢語教學'이라는 말은 외국인 대상의 중국어교육을 말한다.

8) 표는 안수용((1992), 손중선(2008)에서 제시된 ESL환경과 EFL환경의 차이를 중국어에 적용시켜 정리한 것이다.

'CFL'환경	'CSL'환경
중국어의 사용이 주로 교실에 국한되므로 듣고 말 할 수 있는 기회의 양이 매우 적다.	중국어의 사용이 교실뿐만 아니라 교실 밖에서도 이루어지므로 듣고 말할 수 있는 기회의 양이 이상적으로 많다.
대부분 우리말과 중국어를 섞어서 수업을 한다.	중국어로만 수업한다.
다인수 학습이 많다.	소인수 학습이다.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언어기능 훈련은 주로 교과목에 의해 이루어진다.	언어기능의 훈련은 교과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 꾸준히 이루어진다.
주로 학습(learning)이 이루어진다.	습득(acquisition)의 성격이 강하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CFL'과 'CSL'은 환경적으로 일정한 차이를 지니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어 환경에 노출되는 절대적 시간량이 적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할 수 있다. 이는 자연스레 구두적 의사소통능력의 부족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환경이 다르면 교육 방법도 달라야 한다. 결국 'CFL'환경에서의 중국어 교육의 핵심 중 하나는 학습자의 구두적 의사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인데, 낭독 교육은 자연스런 구두 표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CFL'환경에서 학습자의 구두적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낭독 교육이 'CFL'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1. 어감의 배양

언어 학습에 있어서 '어감(語感)'은 '언어에 대한 민감도 혹은 일종의 직관력' 등으로 정의되는데, 呂叔湘(1987)은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정의하였다. 呂叔湘(1987)에 따르면 어감은 크게 '의미적 어감', '어법적 어감', '어음적 어감'으로 나뉘는데, 의미적 어감은 단어에 대한 의미와 색채적 민감성을 말하며, 어법적 어감은 하나의 어법현상이 정상적인 것인지 특수한 것인지, 또 몇 가지 어법 형식 사이에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는 지 등에 대한 민감성을 말하고, 어음적 어감은 어음적 자연스러움에 대한 민감성을 말한다.⁹⁾

어감은 많은 언어적 접촉과 연습을 통해 형성되기 마련인데, 반복적인 낭독 연습은 이러한 어감을 배양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다음을 보자.

옛날의 독서는 눈으로 읽지 않고 소리내어 읽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서당에서 낭랑하게 목청을 돋우고 가락에 맞추어 책을 읽었다. 선생은 좌우로 몸을 흔들고, 학생을 앞뒤로 흔들며 읽었다. 책을 읽는 낭랑한 목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 그렇게 읽다 보면 그 가락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뇌리에 스며들어, 뜻을 모르고도 글을 외울 수 있었다. 의미는 소리에 뒤따라왔다.¹⁰⁾

알베르트 망구엘의 『독서의 역사』를 읽어보니 중세 유럽에서도 책은 반드시 소리를 내서 읽었다고 한다. 암브로시우스가 묵독하는 것을 본 아우구스티누스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눈으로만 읽는 묵독은 그 비밀스러움 때문에 묘사스럽게 보였던 모양이다. 그들은 경전을 읽을 때 신성함을 유지하려면 문장의 가락에 맞춰 몸을 흔들고 입을 크게 벌려 소리내어 성스러운 단어들을 읽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 레야만 책장에 쓰인 죽어 있던 단어들이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올라 의미화된다고 여겼다.¹¹⁾

위의 두 부분은 정민(2010)의 『책읽는 소리』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선인들이 낭독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준다. ‘가락’에 맞추어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가락이 익혀지고 가락이 익혀지다 보면 자연스레 ‘의미’도 뒤따르게 되는 과정, 바로 이 과정이 어감을 배양하는 과정인 것이다. ‘가락’은 ‘소리의 길이와 높낮이의 어울림’이다. 가락에 맞춰 읽으려면 어음이 정확해야 할 뿐 아니라 더불어 통사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낭독을 하다보면 자연스레 어음과 어법이 익혀진다.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자가 나타내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어감을 배양하는 과정인 것이다. 張魯昌(2008:124-125)은 낭독이 어감을

9) 呂叔湘 (1987) 참조.

10) 정민(2010:15)

11) 정민(2010:18)

배양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몇 가지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첫째, 낭독은 다양한 어음적 지식을 활용해 서면 언어를 유성 언어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음적 직관력이 배양된다.

둘째, 의미는 소리, 억양, 표정 등이 종합적으로 운용되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에 변화가 생기면 의미에도 차이가 있게 된다. 예를 들어, ‘几个女人有点失望, 也有点伤心, 各自在心里骂着自己的狠心贼.’란 문장을 낭독할 때 ‘狠心贼’는 표독스러운 어투로 읽게 되면 원문이 나타내려는 의미와 차이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원망하면서도 부드러운 어투로 읽어야 그 의미가 드러난다. 이처럼 낭독은 의미적 직관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낭독은 끊어 읽기, 강세 등을 통해 이미 학습한 문장 구조를 복습하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낭독은 중국어의 어감을 배양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감을 배양하기 힘든 ‘CFL’환경에서 매우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

2. 언어 기능과 언어 지식의 종합적 운용

외국어 학습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랑그’와 ‘빠롤’의 각도에서 볼 때, 의사소통 능력은 곧 ‘빠롤’ 능력이다. 랑그가 한 언어에 대한 ‘이론적 구조’라면 ‘빠롤’은 ‘실천적 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실천적 운용은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4가지 언어 기능으로 나타난다. 낭독은 바로 이 4가지 언어 기능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듣기와 말하기는 입말 활동에 속하며, 읽기와 쓰기는 글말 활동에 속한다. 낭독은 읽는 대상이 서면자료라는 점에서 글말과 관련이 있으며, 그것을 유성

언어로 변환한다는 점에서 입말과도 관련이 있다. 언어 기능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못하며 서로 일정한 의존관계를 맺고 있다. 낭독은 단순히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반복적인 시각적, 청각적 자극을 통해 청해 능력을 훈련하는 방식으로 듣기 능력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언어 기능을 발달시키는 역할을 한다.

낭독 교육은 언어 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이다. 심소희(1999)에 따르면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와 중국인의 끊어 읽기 실험 결과 ‘介宾’구조, ‘主谓’구조, ‘连词’구조, ‘联合’구조 등에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끊어 읽기에 영향을 받은 부정전이인 경우가 많은데, 한국어의 끊어 읽기가 기본적으로 통사적 관계에 의해 실현된다고 볼 때, 결국은 한국어와는 다른 중국어의 통사적 특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강세나 억양 역시 의미 관계나 화용적 의도에 따라 실현 양상이 달라지므로 낭독 교육을 통해 다양한 언어 지식을 종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3. 한자의 음성적 활성화

한자는 표의문자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글자의 독음을 익히는 방식이 표음문자를 지닌 언어의 경우와는 다르다. 표음문자를 지닌 언어는 기본적인 음절 조합 규칙을 익히면 쉽게 해당 음절의 독음을 익힐 수 있지만 한자의 경우는 일부 형성자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글자가 형태적으로 독음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게다가 중국어는 성조 언어이기 때문에 매 글자에는 성모, 운모, 성조의 세 가지 독음 정보가 모두 들어 있다. 결국 학습자는 한자를 발음 할 때, 두뇌 속에 저장된 해당 한자의 독음을 음성적으로 활성화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낭독은 바로 한자의 독음 정보를 음성적으로 활성화하는 과정인데, 학습자는 반복적인 낭독 훈련을 통해 한자를 정확하게 음성화하고 또 음성화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문장부호 학습

문장부호는 언어를 문자로 기록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만일 문장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글의 낭독이나 해독에 있어 큰 불편함을 겪을 것이다. 문장부호는 문장의 문법적, 논리적 구조를 드러내 보여주기도 하고 (쉼표, 마침표, 모점 등), 문장의 유형을 나타내기도 하며(물음표, 마침표, 느낌표 등), 문장의 어떤 부분이 삽입적 요소인지, 강조할 부분인지, 인용한 부분인지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따옴표, 강조점, 서명기호 등). 이처럼 문장부호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특히 중국어는 전통적으로 고립어적이며 의미 결합적(意合法, parataxis)인 언어 유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장부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문장부호는 중국어 교육이라는 각도에 있어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교육 내용이다. 苏陪成(2010)은 각 문장부호의 용법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통사적 구조, 끊어 읽기, 억양 등과 관련된 다양한 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용법은 낭독 교육이라는 각도에서 볼 때, 다양한 낭독 정보가 된다. 즉 글 속에 표현되어 있는 문장부호를 통해 다양한 낭독 정보를 얻고 낭독자는 그 정보에 의해 정확하게 낭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낭독자는 문장부호의 용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중국어로 글을 쓸 때 문장부호를 바르게 사용하여 올바른 작문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된다.

5. 모니터링을 통한 교정

낭독 교육은 학습자들이 이미 배운 여러 가지 지식을 자발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으로, 학습자는 낭독 과정 중에 언어 지식의 적용에 주의를 집중하게 되며, 또 표준적인 낭독 표본¹²⁾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오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러한 점검 활동을 ‘청취 모니터링을 통한 교정(监听)’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스스로의 청취 모니터링을 통한 교정(自我監聽糾正)’과 ‘타인의 청취 모니터링을 통한 교정(他人監聽糾正)’으로 나뉜다.¹³⁾ ‘스스로의 청취 모니터링을 통한 교정’은 낭독 과정 중에 스스로 자신의 소리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교정하는 것으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겠다. ‘타인의 청취 모니터링을 통한 교정’은 학습자의 소리에 대해 타인이 모니터링하여 교정해 주는 것으로 이 때 타인은 교사가 될 수도 있으며 중국어 능력 수준이 비교적 높은 학습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낭독-모니터링-교정’의 순환적인 연습을 통해 학습자는 자연스럽게 표준적인 낭독 표본에 가까운 모습을 지니게 된다.

IV. 중국어 낭독교육의 현황과 과제

Ⅲ장에서는 낭독 교육이 중국어 교육에서 지니는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장에서는 중국어 낭독 교육의 현황에 대해 고찰하고 향후 낭독 교육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1. 현황

1.1 인식적 측면

학문 영역의 발전은 해당 영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언어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언어가 하나의 독립된 연구 대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며, 외국어 교육 역시 언어학과는 다른 독립적 영역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발전해왔다. 그렇다면

12) 표준적인 낭독 표본이란 표준적인 모국어 화자의 낭독이나 그 녹음 자료 등을 일컫는다.

13) 張魯昌(2008:124) 참조.

현재 중국어교육에서 낭독 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우선 중국어 교육 종사자들은 낭독을 필수적이지 않은 수의적 연습이나 학습자의 수준 점검의 수단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학습자 자신의 학습 방법일 뿐 하나의 교육 영역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필자의 수업을 받는 대학 3,4학년 학생 중 중국어 학습 과정 중에 낭독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던 학생은 거의 진무했다. 결국 학습자는 중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낭독해야 유창하고 자연스러운 음성적 표현이 되는지에 대한 학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음은 정확하나 어딘지 부자연스러운 단계를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하게 되며, 이 단계의 극복 여부는 학습자 자신의 몫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고등학교 중국어 교육 과정의 목표 기술에서도 엿볼 수 있다.

- 강세와 억양, 끊어 읽기에 유의하면서 낭독 연습을 하도록 한다.¹⁴⁾
- 강세와 억양에 유의하면서 낭독 연습을 하도록 한다.¹⁵⁾

교육 목표에 ‘낭독’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낭독이 체계적인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연습’의 대상으로 기술되고 있다. 연습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중국어 교육 과정에서 강세와 억양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 지 즉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교과서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낭독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위의 기술에서 보듯이 ‘유의하면서’ 읽는 것이다. 유의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두뇌 속에 관련된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즉 사전에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낭독 교육의 진행 여부는 교사의 몫이 되어 버리고 만다. 교사 개인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

14) 중국어 I - 4. 교수·학습 방법 - 언어 기능 - 읽기

15) 중국어 II - 4. 교수·학습 방법 - 언어 기능 - 읽기

고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실제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로 인해 낭독은 ‘교육’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수의적 ‘연습’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1.2 연구적 측면

중국어 낭독 교육에는 크게 교육 내용(교육 요목)과 교육 방법 혹은 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가 있을 수 있는데, 아쉽게도 현재 이러한 영역에 대한 연구 논문이나 저작은 찾아보기 어렵다. 杜艳青·李相度(2005)의 『중국어낭독-이론과 실제』가 낭독과 관련된 유일한 저작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낭독을 하나의 중요한 교육 영역으로 제시하고 풍부한 낭독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실제 수업을 염두에 두고 편찬된 것으로 중국어 낭독 교육에 대한 이론서라 볼 수는 없으며, 낭독 교재의 성격에 가깝다. 또 소개된 낭독 이론이 초급단계에 국한되어 있고 누락된 항목도 있기에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낭독 교재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를 제외하고 낭독을 하나의 독립된 교육 주제로 다룬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어 낭독 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낭독 교육에 대한 인식의 반영이자 동시에 교육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반영이기도 하다. 특히 교육 내용(교육 요목)의 경우 교육 과정, 교육 방법, 교재 편찬 등 일련의 교육 영역에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임에도 이와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은 낭독 교육이 중국어 교육에서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2. 낭독 교육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과제

2.1 낭독 교육의 위상 정립

II장과 II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낭독은 종합적인 언어기능이며, 어감을 배양하고 어휘나 문장 구조 등을 익히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낭독은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운용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 점에서 볼 때 다른 교육과는 층위를 달리 할 수 있다. 언어 교육은 보통 음성, 어휘, 어법 등의 언어지식 교육과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의 언어기능 교육으로 구분된다. 학습자는 학습된 언어지식을 운용하여 언어기능을 갖추어 나간다. 낭독 교육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는 점에서 언어지식 교육과도 일정한 차이가 있으며, 단일한 언어 기능이 아니라는 점에서 언어기능과도 일정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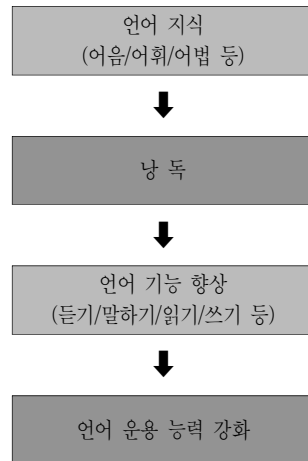
이러한 각도에서 낭독 교육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우선 낭독 교육은 먼저 '읽기 교육'과 구별해야 한다.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고등학교 중국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읽기'의 목표 기술에는 낭독과 묵독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중국어 교육에 있어 낭독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낭독과 묵독의 기능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읽기'로 묶어서 범주화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러므로 기존의 '읽기'는 묵독만을 대상으로 하고, 낭독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종합적 운용이므로 별도의 언어기능으로 분리하는 합리적이다.

두 번째로 낭독 교육을 어음 교육과 구분해야 한다. 우선 2007년에 '汉办'이 중국어 교육의 국제적 표준 마련이라는 취지하에 제정한 『国际汉语教学通用课程大纲』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음' 영역의 각 등급별 교육 목표를 살펴보자.

등급	목표기술
1	1. 중국어 병음의 정확한 독음을 익힌다. 2. 한자의 발음을 초보적으로 식별한다. 3. 중국어가 성조언어라는 것과 표준어에는 4개의 성조와 경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어 학습에서 어음이 지니는 의미를 이해한다. 2. 중국어에서 자주 보이는 몇 가지 성조 변화 규칙을 초보적으로 익힌다. 3. 일상 회화에서 어음과 억양(语调)을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3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어 병음 지식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 2. 병음에 근거해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읽어낼 수 있다. 3. 일상 회화에서 연독과 성조 변화 등의 음운 변화를 지니는 담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4. 일상 회화에서 어음과 억양을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
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어의 병음 체계를 익힌다. 2. 어음, 억양, 강세 등에 근거해 담화의 함의를 이해한다. 3. 일상 회화에서 성조가 기본적으로 정확하며, 연독과 성조 변화 등을 정확하게 사용한다. 4. 일상 회화에서 어음과 억양을 기본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상 의사소통에서 어음과 억양이 점차 자연스럽게 유창하다. 2. 어음, 억양, 강세 등의 수단을 이용해 특수한 함의를 표현한다. 3. 중국어의 리듬과 운율을 초보적으로 이해한다. 4. 다소 상이한 말투의 표준어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

『国际汉语教学通用课程大纲』에서는 위의 표와 같이 각 등급별로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어음 목표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어음’이라는 개념이 이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2급에서 “‘어음’과 ‘억양(语调)’을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음’과 ‘억양’을 대별하여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억양’은 ‘어음’과는 다른 영역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또 4급의 ‘강세’, 5급의 ‘리듬’, ‘운율’ 등도 ‘어음’과 대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로써 볼 때, ‘억양’, ‘강세’, ‘리듬’, ‘운율’ 등은 어음과는 또 다른 내용으로 간주하고 있으면서도 ‘어음’교육의 내용에 포함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억양’, ‘강세’, ‘리듬’, ‘운율’ 등은 그 최종적 실현이 어음적인 것은 맞지만 어음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지식이 개입된다. 그러므로 단순히 어음교육의 대상으로만 구분 짓기에는 외연이 너무 넓다. 『国际汉语教学通用课程大纲』에서도 이러한 각도에서 이들을 ‘어음’과 대별하여 제시했으리라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낭독을 다음과 같은 교육 체계 속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언어지식은 언어기능을 향상시키기 토대가 되는데, 낭독 교육은 언어지식을 종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언어기능의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언어 지식과 언어기능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된다. 그러므로 낭독은 언어지식과 언어기능의 교량 역할을 하는 하나의 독립된 교육 영역이 될 수 있다. 즉 낭독은 단순한 ‘연습’의 하나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종합적인 언어 운용 능력을 배양하는 하나의 독립된 교육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낭독 교육요목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2 낭독 교육요목의 마련

낭독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와 위상 정립과 더불어 교육 내용이 정해져야 한다.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 교육 과정과 교재 등에 적용되지 못하는 한 실제적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낭독 교육 요목이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현재 낭독교육요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에 근거로 하여 낭독교육요목을 구성해야 할까? 본고에서는 ‘普通話水平测试(이하 PSC)’가 낭독교육요목을 구성하는데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PSC는 표준어 구사의 규범성 및 숙달도를 측정하여 그 등급을 인증하는 평가인데, 5가지의 평가 영역¹⁶⁾ 중에 낭독이 포함되어 있다. 또 『普通话水平测试大纲』에는 낭독의 평가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이 평가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普通话水平测试大纲』에 제시하고 있는 낭독의 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다.¹⁷⁾

- (1) 每错1个音节, 扣0.1分; 漏读或增读1个音节, 扣0.1分。
- (2) 声母或韵母的系统性语音缺陷, 视程度扣0.5分、1分。
- (3) 语调偏误, 视程度扣0.5分、1分、2分。
- (4) 停连不当, 视程度扣0.5分、1分、2分。
- (5) 朗读不流畅(包括回读), 视程度扣0.5分、1分、2分。
- (6) 超时扣1分。

위의 평가 방식을 보면 성모·운모·성조를 포함한 독음의 정확성, 억양, 끊어 읽기, 유창성, 속도 등이 평가의 주된 항목임을 알 수 있는데, 평가 항목 중에 성조 변화나 강세 등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徐波(2008:68)는 PSC의 낭독 평가와 관련된 연구 보고서에서 낭독 평가를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항목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徐波(2008)는 평가 항목은 크게 ‘声母韵母归类测评’과 ‘语调归类测评’으로 나누고, ‘声母韵母归类测评’에는 성모와 운모만을 포함하였으며, ‘语调归类测评’에는 성조와 성조변화, 강세, 끊어 읽기, 리듬, 억양을 모두 포함시켰다. 이 평가항목에는 성조 변화와 강세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의 항목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语调’를 매우 폭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16) PSC의 평가영역은 ‘读单音节字词’, ‘读多音节词语’, ‘选择判断’, ‘朗读短文’, ‘命题说话’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7) 낭독 평가는 총 30점이며, 400자로 구성된 1편의 글을 제한시간(4분)내에 낭독해야 한다.

项 目			扣 分	
一、 声母韵母归 类测评	每 1 组系统性声母或韵母错误		1	
	每 1 组系统性声母或韵母明显缺陷		0.5	
二、 语 调 归 类 测 评	1. 声 调 变 调 失 误	系统性声调失误 或明显缺陷	每类声调失误 0.5	
			每类声调明显缺陷 0.2	
		系统性“一”的变调失误	0.5	
		系统性“不”的变调失误	0.5	
		系统性上声变调失误	0.5	
	2. 轻 重	系统性轻声词失误		0.5
		语法重音失误		0.5
		逻辑重音失误		0.5
	3. 停 连	略有停顿不当(1—2次)		0.2
		多次出现停顿不当(3次以上,含)		0.5
		停连不当产生歧义		1
	4. 节 奏	急 促 型	节奏明显急促	0.2
			节奏过于急促 (全文朗读用时 1 分 30 秒)	1
		缓 慢 型	节奏明显缓慢	0.2
			节奏过于缓慢 (全文朗读用时超过 3 分钟)	1
	与作品内在节奏不相符		0.5	
	5. 句 调	方言句调		0.5
固定句调		0.5		

보통 ‘语调’는 ‘문장의 고저승강의 변화’ 즉 우리말의 ‘억양’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普通话水平测试大纲』에서도 ‘끊어 읽기’나 ‘유창성’, ‘속도’ 등과는 다

른 평가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억양’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徐波(2008)는 ‘语调’를 ‘강세, 끊어 읽기, 억양과 리듬 등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¹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句调’를 ‘语调’에 포함되는 ‘억양’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语调’에 성조와 성조변화까지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徐波(2008)는 이러한 폭넓은 개념의 ‘语调’를 하나의 평가 항목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평가 항목의 분류 기준으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낭독교육항목을 구성하는데는 별 관계가 없다. 다만 위의 평가 항목들은 평가를 위한 개략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실제 교육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항목이 더 보완되어야 하며 항목별 세목도 더 구체화 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徐波(2008)가 제시한 낭독 평가 항목이 낭독 교육 요목으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보완점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첫째, ‘강세’, ‘끊어 읽기’, ‘억양’ 등의 항목이 유형별로 구체화 되어야 한다. 徐波(2008)에서는 단순히 항목별 평가 방식만이 제시되어 있지만 교육 요목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규칙이 제시되어야 한다. ‘강세’, ‘끊어 읽기’, ‘억양’ 등은 문장 부호와 같은 외현적 요소와 음절 구조, 문장 구조나 의미 구조 등과 같은 내재적 요소가 개입되므로 이러한 요소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교육 항목이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세 중 ‘문법 강세’는 현재 개발되어 있는 등급별 어법 요목과 연계하여 유형화 되어야 하며, ‘논리 강세’는 의미 구조와 연계되어 유형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 끊어 읽기는 문장 부호 및 문형과 연관성에 기초하여 끊어 읽기 규칙이 제시되어야 하며, 억양의 경우에도 문형과의 연관성 속에서 ‘平调’, ‘升调’, ‘降调’, ‘曲调’ 등의 억양 유형이 제시 되어야 한다.

둘째, 각각의 교육 항목이 단계화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徐波(2008)에서는 누락되어 있지만, “啊”音变의 경우 현재 많은 교재의 경우 한어병음을 익히는 초기에 음운 변화의 하나로 제시되곤 하는데, 이는 낭독 교육의 측면에

18) 语调作为一个口头语言表达技巧的专业术语, 包含轻重、停连、句调和节奏等要素。徐波(2008:65)

서 볼 때 부적절하다. 『新汉语水平考试大纲』에 보면 ‘啊’는 3급 어휘에 속하며, 어법 항목에서도 3급(감탄사)에 제시되어 있다. 어음지식의 이해라는 각도에서는 등급 분류 없이 제시할 수 있겠지만 낭독 교육이라는 각도에서 볼 때, ‘啊音变’를 초기 입문 단계에 제시하고 연습하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또 강세의 경우에도 화용적 성격을 지지는 논리강세가 통사적 성격의 어법강세 보다 학습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논리강세는 어법강세 보다 높은 단계의 교육 항목에 배치해야 한다.

셋째, 낭독 단위에 대한 층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PSC는 중국어 표준어 능력 검정이기 때문에 낭독 내용 또한 모국어 화자에 맞추어져 400 여자로 구성된 1편의 글이 낭독 내용이 된다. 하지만 외국어 학습자의 경우에는 초급부터 고급까지 다양한 학습 단계를 이루기 때문에 낭독 내용 또한 수준에 맞게끔 층위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낭독을 하려면 최소한 음절 이상의 단위 여야 하기 때문에 최소 단위는 단음절어가 되며, 학습이 진행되면서 문장 이상의 단락을 낭독하게 되므로 최대 단위는 단락이 된다.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낭독 단위는 다음과 같이 재분류될 수 있다.

단음절어→다음절어→구→단문→복문→단락

이러한 낭독단위는 낭독항목과 연관이 된다. 예를 들어 ‘儿化韵’은 다음절어에 나타나는 내용이 될 것이며, ‘끊어 읽기’는 ‘구’ 이상의 단위에 적용되는 내용이 될 것이다. 물론 어느 경우에는 둘 이상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기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강세’는 단어 강세일 경우에는 다음절어에 속하지만 문장 강세일 경우에는 문장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낭독항목은 층위화된 낭독단위와의 연관성 속에서 배열되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낭독은 중국어 교육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교육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육 현장에서 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는 중국어 교육에서 낭독이 지니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 크게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낭독은 단순히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아니라 언어지식의 종합적 운용을 통해 언어기능을 향상시키는 촉매 기능을 한다. 특히 낭독은 한국과 같은 ‘CFL’환경 속에서 부족해지기 쉬운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제고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낭독이 하나의 중국어 교육 영역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이유와 낭독 교육의 현황, 그리고 낭독 교육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과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낭독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교육 과정이 설계되어야 한다. 교육 과정의 설계에는 등급별 교육요목의 구성과 이에 따른 교재의 편찬, 그리고 학습자를 평가하고 교육적 환류가 될 수 있는 평가 방법 등이 포함된다. 이 중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 과정의 설계도라 할 수 있는 등급별 교육요목의 구성이다. 필자는 ‘PSC’의 낭독 평가가 낭독 교육요목을 구성하는데 일정한 참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徐波(2008)가 제시한 ‘PSC’의 낭독 평가항목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비록 초보적 의견이기는 하나 낭독 교육요목의 구성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앞으로 낭독이 하나의 교육 영역으로 자리잡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속히 낭독 교육요목의 구성 원칙과 방향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 낭독 교육요목이 구성되고 그에 따른 교육 과정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낭독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변화와 낭독에 대한 지식적 토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7개정교육과정(외국어)』(서울:교육인적자원부, 2007)
- 박광희·심재원, 『영어 낭독훈련에 답이 있다』(서울:사람in, 2010)
- 손중선, 「EFL 환경의 영어교육적 의미:인식과 이해」, 『현대영어영문학』52-3호
(서울: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2008)
- 심소희, 「한국인의 중국어 문장 끊어읽기에 대한 고찰」, 『중국언어연구』제8집(서울:한국중국언어학회, 1999)
- 안수웅, 「EFL 환경에서의 영어 조기 교육」, 『영어교육』43호(서울:한국영어교육학회, 1992)
- 이상도·杜艳青, 『중국어낭독-이론과 실제』(울산:울산대학교 출판부, 2005)
- 정민, 『책 읽는 소리』(서울:마음산책, 2002)
- 国家汉语国际推广领导小组办公室, 『国际汉语教学通用课程大纲』, (北京: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08)
- 韩惠俐, 「浅谈朗读在外语学习中的效用和方法」, 『河南财政税务高等专科学校学报』第6期河南:(河南财政税务高等专科学校, 2006)
- 李桂花, 「浅谈汉语朗读教学」, 『中国校外教育』下旬刊(北京:中国校外教育杂志社, 2007)
- 刘香敏, 「谈少数民族汉语朗读教学」, 『新疆职业大学学报』第4期(新疆:新疆职业大学, 2007)
- 吕叔湘, 『吕叔湘论语文教学』(济南:山东教育出版社, 1987)
- 王正文, 「大学英语词汇教学的目的及方法」, 『外语界』第4期(上海:上海外语教育出版社, 1996)
- 徐波, 「朗读测评方法研究报告」, 『浙江海洋学院学报』25卷3期(舟山:浙江海洋学院, 2008)

张鲁昌, 「朗读在对外汉语教学中的功能」, 『现代语文』第8期(山东:曲阜师范大学, 2008)

朱治中, 「强化词意识认真对待词的挑战」, 『外语界』第1期(上海:上海外语教育出版社, 1991)

<Abstract>

Discussion on Recitation of Teaching Chinese

Jung Yoon Cheol

Although recitation is a very effective means of Chinese language education, it has not been efficiently applied at school.

Recitation does not simply mean reading aloud. It serves as a facilitator of improving language ability through comprehensive usage of language knowledge. Recitation is a very effective learning vehicle for enhancing listening and speaking skills, which are likely to be neglected in the CFL(Chinese as a Foreign Language) environment particularly like Korea.

In the main text, I have presented some reasons why recitation should be positioned as a field of Chinese education and its current situation. And I also have studied on several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for its education.

The first priority given now is to organize a frame of level-based education syllabus, namely a map of the education course.

Judging that recitation evaluation of 'PSC' can play a role as reference in constructing the education syllabus, I have analyzed the 'PSC's items on the recitation evaluation and based on such analysis, I have suggested a basic direction for the organization of education syllabus for recitation although it is not entirely complete.

In order to have recitation established as a education branch and proceed smoothly at school, its education syllabus should be arranged and appropriate education courses will be designed as soon as possible through a process of broad research and considerable discussion on principles and guidelines of forming the education syllabus for recitation.

Key Words : recitation, Chinese language education, CFL, PSC, education syllabus

투 고 일 : 2011. 1. 10. / 심 사 일 : 2011. 1. 20. ~ 2011. 2. 10. / 게재확정일 : 2011. 2. 17.